

“소외된 이웃 돕는데 적게나마 보탬이 될 것”

하림푸드트럭, 동신여고 국제고 방문 무료 시식회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의 '전국 방방곡곡 찾아가는 하림 푸드트럭'이 16일과 17일 광주광역시 동신여자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를 방문해 무료 시식회를 진행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행사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의 '2017 나눔실천학교 프로젝트' 무연고 아동돕기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돼 그 의미가 더 컸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가 참여 학교 중 두 곳을 선정해 하림 푸드트럭이 하루씩 찾아가 누구나 즐겨 먹는 '하림 안동식 순살찜닭'을 무료로 맛보게 한 것. 하림은 전북 익산에 본사가 있는 기업으로서 광주전남 지역 무연고 아동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무료시식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림은 이를 동안 두 학교에 '하림 안동식 순살찜닭' 600인분을 지원하고, 개인 SNS 채널에 하림 푸드트럭 현장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하림, #하림푸드트럭)를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하림 선물세트를 비롯한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SNS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했다.

하림 마케팅팀 정충선 차장은 "하림 푸드트럭이 지역사회의 소중한 인재들을 응원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매우 뜻 깊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의 '전국 방방곡곡 찾아가는 하림 푸드트럭'이 16일과 17일 광주광역시 동신여자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를 방문해 무료 시식회를 진행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익산에 본사를 둔 ㈜하림은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해마다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부', '문화재

및 생태계 보존/보호', '물심양면 봉사' 등 사회공헌 3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눔활동을 사내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임직원들이 한해 동안 실천한 봉사활동을 금액으로 환산해 사회공헌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했다. /익산=정영원 기자

경찰청, 멘토·멘티 여름방학 캠프 가져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부안군 소재의 워터파크에서 '내 친구는 경찰관 멘토·멘티'라는 이름으로 여름방학 캠프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지난 2013년 전북경찰청 직원과 관내복지시설 초등학생 간 1:1 결연을 맺은 후, 매년 3회 정기적 만남을 통해 멘토·멘티간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조희연 전북경찰청장은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꿈과 희망을 키우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또한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실천을 위해 항상 도민을 위한 전북경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완산서, 112 타격대 출동태세 점검·인명대피 전문훈련

완산경찰서는 지난 18일 전주박물관에서 폭발물 테러에 대비한 112 타격대 출동태세 점검 및 인명대피 전문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을지연습 종합훈련에 대비해 전주박물관에서 북한 특작부대 폭발물테러시 초동조치 및 112타격대 임무를 숙지하고자 실시했다.

김황수 완산서장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등 안보위협이 가중된 상황에서 테러 등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완벽한 출동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고창경찰서, 직원들과 수평적 소통 시간 가져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이 직원들과 수평적 소통의 시간을 통해 문제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 해소하고 있다.

내부고객인 직원들의 긍정적사고와 일할 맛나는 직장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격의없는 대화나눔을 진지하게 이어가고 있다.

박현수 서장은 "먼저 내 자신을 낮추고 벽 없이 수평적 관계를 형성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으로 발돋움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진정으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수 있는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비난방울가족봉사단, 아동 목욕 봉사활동 전개

사)전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주최하고 장수군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주관하는 비난방울가족봉사단' 단원 10여명은 지난 19일 지역 내 아동들을 위해 목욕 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비난방울 봉사단은 지역사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외 계층 아동들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월 1회 목욕탕을 찾아가 '목욕을 통해 친밀감을 쌓고, 경결해진 자신의 모습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영하 장수군자원봉사종합센터장은 "가족봉사단 활동이 아동들의 자존감회복과 인성 발달에 좋은 기회가 되고, 가족봉사단들의 참여로 인해 봉사단 내 가족간의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산경찰서, 전주대 물래카메라 설치여부 점검

완산경찰서는 지난 18일 전주 전파관리소, 전주대학교 학생회, 전주대학교 캠퍼스폴리스 학생들과 공동으로 학생들의 출입이 많은 학생회관과 도서관 화장실 등 교내 시설을 대상으로 정비를 사용해 물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래카메라 식별요령과 발견시 신고요령을 홍보했다.

완산서는 최근 물래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자주 유통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물래 영상이 음란물 형태로 제작되어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로 인식해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특히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철에는 물래 성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학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안준욱 완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대학생들은 이제 막 성인이 되었지만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해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대학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학교주변 범죄예방 순찰, 성폭력 예방교육 등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기사제보 288-9700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5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출부)	
발행·편집장 조봉성	부회장 김승근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시 010-9845-4113	중앙지시 010-9088-6874	남원지시 632-3886	고창지시 563-6888
삼천지시 010-2333-4791	인후지시 248-6855	김제지시 547-8855	임실지시 010-9642-2725
서산지시 010-272-9417	순천지시 255-2404	완주지시 248-8855	진안지시 433-3084
호주지시 010-6645-9335	광복지시 253-6844	남원지시 632-0955	정읍지시 538-3787
	익산지시 659-9323	순창지시 653-0444	장수지시 010-3882-9157
		부안지시 010-2425-4182	무주지시 010-2300-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제11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2017.9.22 ~ 9.24 일
전라북도 장수군 의암공원 및 장수군 일원

장수한우랑
사과랑축제
장수
프로그램

장수한우마당

사과낚시체험

깃털놀이

토마토속
"왕금민자를 찾아라"

장수 한우
콘포노르기 대회

사과의 노래

마을포차 체험

주 회 | 장 수 군 주 관 | (사)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추진위원회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 등